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제목과 공적인 기도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을 25일(화)-27일(목)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 멋쟁이학교 테마여행을 24일(월)-28일(금)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를 찾아서 지역별로 진행합니다.
-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랑방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제선정' 전체 모임을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 수익금은 새터마을교회(권혁신 목사)와 '개척자들' (송강호 대표) 공동체에 전달하였습니다.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설립 17주년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행사가 24일 (월) 오후 6시, 퍼시픽호텔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생일) · 장미라 집사 가정
석용범 · 박영선(생일) 집사 가정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3 호

2022년 10월 2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 더 가까이

이번 주간은 기독교교육주간이었습니다. 특별새벽기도가 열리는 이 기간에 교육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방석이 놓였습니다. 밤잠을 물리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려는 발걸음의 종착지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몇쟁이학교 학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꾸벅꾸벅 졸자라도, 그 장에 함께 있었던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온, 혹은 마음으로도 함께 했던 모든 지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 달라지는 다양한 기도제목이 있음에도 모두가 똑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완벽한 기도 그 자체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잘 알고 계신 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기도는 '대화'로 비유됩니다. 사람 사이에 생각과 감정이 오고가는 행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야 하겠지요. 전지전능한 신과 겨우 몇십년을 살아가는 일개 인간과는 건널 수 없는 너무 커다란 장벽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화의 연결고리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다가, 선함 그 자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30년을 농사지었던 농부의 말을 초년차가 경청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경청하는 대화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일상적인 것이라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자신과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 자체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러니 형태는 달라졌을지라도 기도의 행위는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왔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우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 않으신가? 싶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자주 드리신 모습이 복음서에 전해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부여받은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십자가로 향하는 좁은 길로 향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령 기도의 응답이, 기도드린 내용과 달라진다 해도 말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라가신 것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동화되는 것이 곧 기도의 정수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우리 입으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처럼 살아가도록 자신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좁은 문과 길로 향하도록 사람을 이끅니다. 그렇지만 선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바람직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당장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나 못하도록 막을 이유도 없겠지요. 단지 좁은 길로 나아가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심많은 자아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누가복음 11:13)라는 희망찬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가 닮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욱 많이 만나고 대화할수록 심령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청할수록, 그 나라를 추구하는 손길에 힘이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원의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라는 유명한 글귀처럼,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 동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단풍이 차갑게 익어가는 이번 가을, 우리 사랑방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 일서 3:11~24

제목 : 진정한 사랑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90 219 220

1. 내용: 사랑하자. (What)
 - 1)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1~15>
 - 2)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16~18>
 - 3) 하나님의 계명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 <19~24>
2. 의미: 계명의 요약은 서로 사랑. (Why)
 - 1)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 2)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 3)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3. 적용: 진정한 사랑을 하자. (How)
 - 1) 망가진 사랑을 바로잡자.
 - 2) 사람과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대하자.
 - 3) 평가와 비판보다 진정한 사랑으로 동참하자.

자발적 결단

사랑방공동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알고 믿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믿기에 공동체교회에서 36년간 지내고, 공동생활을 14년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은 욕심, 성급함, 두려움, 자존심, 안락함 등이 나의 삶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견디기가 어렵고, 환경과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였기에 쉽게 공동체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 분명하여 그 말씀에 응답함이 안전한 길이라고 결단하니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예비하셨고,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이제는 그 결과를 지켜보며 때가 이르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질한 욕구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지향하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떠나는 일은 우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결단하고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보니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마땅히 함께할 일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마주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커다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겠지만 날마다 자발적 결단과 함께 하는 지체들, 성령의 도우심만이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가기 를 원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사랑방공동체는 제자리를 잡고, 회복하고, 오는 세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적 삶, 모델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00 : 4-5 인도자
1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역대지하 7 : 14 인도자
452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열왕기하 21 : 1-16, 22 : 2, 8-11 설교자
366 사랑방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86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요시아의 종교 개혁 요시아왕은 므낫세왕이 들여왔던 모든 우상들과 잘못된 예배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수리를 명령합니다. 그곳에서는 율법서가 나왔습니다. 요시아왕은 율법서의 내용을 들으며 너무 놀라고 슬퍼 옷을 찢으며 읍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내용대로 개혁을 실시합니다. 성전에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산당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드립니다.

요시아의 신앙 개혁운동 요시아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율법서가 발견되었고 그 내용을 비추어 자신과 나라를 보니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산에 있던 산당들도 또한 다 없앴습니다. 이 개혁은 남유다 뿐 아니라 사마리아지방까지 미쳤습니다.

우리의 신앙 개혁운동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운동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또한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사랑방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박태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푸러기학교

월요일에는 지산이, 수요일에는 하성이와 하은이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생일을 축복하는 날, 생일인 친구들과 축복하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품안에서 쑥쑥 잘 자라길 바라며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을을 맞아 평강랜드에 갔습니다. 나무들은 노랗게, 빨갛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갑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아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맛있는 가을의 모습도 보고 신나게 뛰어 놀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을 때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아쉬워하는데 이 때도 어김없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에 모습에 너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참 바빴던 게 지난 달 아픈 친구들이 있어서 못 갔던 뮤지컬 '장수탕선녀님'도 보고 왔습니다. 옛날 목욕탕인 장수탕을 배경으로 선녀님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6살 덕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목욕탕을 못 가본 친구들은 옛날 목욕탕에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봤습니다. 노래도 재밌고, 이야기도 재밌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맛있는 돈까스도 먹고, 서울숲을 걸으며 산책하며 놀고 왔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인지 아이들의 옷도 제각각입니다. 얇은 점퍼 차림 · 긴 티셔츠 차림 · 조끼 차림 · 조끼에 점퍼 차림 · 털자점퍼 차림 ... 아이들의 성격이 다양하듯 여는 모임에 차림도 다양합니다. 바람이 좀 불지만 하늘은 예뻐서 자꾸 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10월 25일(화)~ 10월 27(목)부터 도보여행이 있습니다. 이번 도보여행은 배움과 가르침

2박 3일로 수동 고로쇠마을을 출발하여 온악산자연휴양림까지 걷고 학교로 60KM 가량 걷고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는모임 달는모임 시간에 운동장을 걷기 연습도 하고 1학년 친구들은 시간을 따로내어 마을을 돌며 몸을 다졌습니다. 날씨 변화 때문에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행기간 동안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기독교교육주간을 맞아 매일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했던 주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며 꾸벅이기도 했지만, 열심히 모여 기도드리면서 뜻깊은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평소에 가졌던 유도 수업 대신 학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필라테스를 배웠습니다. 전교생이 자그마한 공이 얼마나 아플 수 있는지, 그 위력(?)을 깊이 실감하며 몸의 신비를 한층 더 깨닫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MT를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와 장소를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서부에서는 밤을 불태우는 각고의 노력 끝에, 코이노니아 28호를 새로이 발행했습니다. 5학년은 유럽의 고산지대, 스위스로 진입하며 그곳에서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평안한 여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6학년도 수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노력을 쏟는 6학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간은 공동심화학습에서 연계된 <유네스코>라는 테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총 4모듬이 전국방방곳곳으로 흩어져 한국의 여러 유산들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여행인 만큼, 지식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바깥에서도 멋쟁이다운 모습들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방공동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사랑방공동체에서 살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방공동체에서 살아갈 이홍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
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보글을 쓰게 되었습
니다. 이렇게 학교 이야기 말고 생활공동체 분들의 글이 들어가는 페이지에
제가 쓴 글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니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
는 것 같습니다. (첫 글이잖아요^^)

우선 제가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이렇게 사랑하셔
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큰 문제없이 살아가게 해주셨
는데 아직 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고민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세례를 받은 이유였고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한
것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소소한 것은 바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중 안 그
래도 피곤한데 꼭 와서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도 내어주거라 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
며 한 번 더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론 예배시간의 태도입니다. 학교생활 중 작년엔 코로나로 참석하지
않았던 수요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면서 수요일 오후 일정한 노작 후에 씻고
밥을 먹고 온뒤 찾아오는 노곤함과 일주일에 반 정도 지나간 수요일쯤 되면
찾아오는 피곤함이 합쳐져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수요기도회를 드리면 즐
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엔 목표가 자지 말아야지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끔 피곤함에게
패배할 때도 있지만 전처럼 포기하고 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고나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학교생활, 신
앙생활 하고 있으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푸른꿈사랑방 이홍인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히브리서 3:1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
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1) 한국 공동체 협의회에 속한 공동체들 모두 공동체의 소명을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2)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식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벽기도>
(1) 새벽 기도를 통해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는 정
태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2) 유럽공동체 탐방 중인 5학년들이 모두 안전한 여행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기독교교육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월요일 오후 공동체 마당이 젊은 청년들로 시끌시끌했
습니다. 바로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사랑방공동체에서 1박하
며 학년 수련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맞은 손님들이라 생활공동
체 식구들이 애를 많이 써주었습니다. 숙소도 정리해주고, 저녁 식사도 준비
해주시고 뭐하나 불편함 없이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자연 예배당에서 퍼져
나오는 청년들의 찬양과 합성 소리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학생들은 돌아가고 생활공동체분
들은 뒷정리를 했습니다. 손님이 머무는 진정한 사랑방입니다.

목요일에는 10월에 생일을 맞은 이현숙, 박예나 선생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 많이 축하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모임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
자가 아닌 함께여서 행복한 생활공동체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